

사회과학적 응용과학으로서의 농업경제학 교육

강 봉 순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1. 문제의 제기

사회의 여건이 변화하면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의 내용이나 역할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사회의 요구에 교육의 내용이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면 교육의 목표는 결코 달성될 수가 없다. 사회과학을 다루는 교육은 사회의 여건 변화에 더욱 민감해야 하며, 교육의 내용이 응용과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사회적 요구와 더욱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과학인 동시에 응용과학인 농업경제학을 교육하는 농업경제학과는 사회의 여건 변화와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여 발전시켜야 할 학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민경제의 급속한 발전과정에서 농업부문은 크게 위축되어 왔고, 국가가 요구하는 농업부문의 역할도 많이 달라졌다. 국민경

제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의 인력 수요구조도 크게 바뀌었으며, 영농구조도 자급자족적 가족농 중심에서 상업농 위주의 가족농으로 전환되었다. 생산기술은 자연자원 중심의 기술에서 과학기술 중심의 기술로 바뀌고 있고, 농업발전의 성격도 성장 위주의 농업에서 소위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환경보전 위주의 지속적 농업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농업정책도 정부주도의 관리경제에서 민간주도의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한국 농업은 대외적으로 강력한 개방 압력을 받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UR과고로부터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구조조정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전환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의 농업경제학 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학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농경제 학과가 설립된 지도 이미 46년이 흘렀다. 그동

안 전국의 거의 모든 국립대학에 농업경제학과나 농업경영학과가 신설되었고, 고려대나 건국대와 같은 사립대에서도 농업경제학과가 생겨났다. 인접학문으로서 축산경영학과나 산림경영학과가 신설된 대학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들 대학의 농업경제학 교육이 사회의 여건 변화에 얼마나 적절히 대응하여 왔고, 급변하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얼마나 충실히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먼저 농업경제학 대학교육의 특성을 개괄한 후에 우리나라 대학의 농업경제학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농업경제학 대학교육의 특성

농업경제학과의 교육목표는 농업경제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량을 기른 이 분야의 중추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에 있다. 농업경제 및 경영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고, 농업경제와 관련된 연구조사 능력을 배양하며, 농업문제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주된 교육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학 이론, 농업경제학 연구방법론, 일반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및 생산경제학, 농산물 유통 및 가격론, 공공정책론, 자원 및 지역경제학, 농촌사회학 및 조직론, 농업사 및 경제사, 농업관련 기술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습득이 필요하다. 농업문제를 경제학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에 이론적 기초로서 경제학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농업문제를 다루고 있기에 농업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며, 농업의 특수성을 알아야 한다. 또한 경제학

이론을 특수분야인 농업부문에 응용시키기 위해서는 농업경제관련 연구방법론을 익혀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농업경제학과의 교육목표는 비로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농과대학의 여타 학과와는 달리 농업경제학과는 농업문제에 대해 자연과학이 아닌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택한다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농촌사회의 여건 변화에 훨씬 민감하고, 문제해결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농업경제학과는 경제학을 이론적 기초로 삼아 농업문제에 접근하려는 일종의 응용경제학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학문적 분류는 경제학에 속하지만 관심의 대상은 주로 농업문제에 있다. 농업이나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서는 어떠한 역할도 수행할 수가 없다. 농업경제학과에서 다루고 있는 농업경제학은 일반경제학과와는 달리 경제이론의 공급자라기보다는 실질적인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소비자라는 특성이 강하다.

3. 현황과 문제점

1) 농업경제학과의 양적 팽창과 졸업생의 관련부문 취업을 저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1948년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 농경제학과가 설치된 이후, 농업경제학 관련학과를 설치한 대학은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1970년대에는 10개 대학으로 늘어났고, 1993년 현재는 4년제 종합대학만 하더라도 19개 대학에 이른다. 건국대학교는 농업경제학과와 축산경영학과를 동시에 개설하고 있어 관련학과의 수는 농(업)경제학과 15개, 축산경영학과 3개, 산림경영학과 1개,

산업경제학과 1개로 모두 20개나 된다. 이밖에 전문대학이 4년제 산업대학으로 바뀐 대학의 학과까지 합친다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1948년에 30여 명으로 시작된 농업경제학과 학생수는 1971년에 794명, 그리고 1992년에는 3,656명으로 늘어났다. 5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무려 120배 이상 늘어나 그 동안의 농업부문의 상대적 위축과 큰 대조를 이룬다.

그렇다고 이러한 양적 팽창이 반드시 과다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농촌사회가 더욱 다기화되고 농업문제가 더욱 복잡해질수록 이를 해결해야 할 인재 양성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농업경제학의 대상인 농업이나 농촌은 지역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고, 나름대로의 지역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농업경제학과가 지역적으로 두루 분포될 필연성도 지니고 있다.

문제는 농업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의 형태이고 한국의 농업구조가 소농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회현실이 이러한 농업경제학과와의 양적 팽창을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농업경제학과 졸업생들의 사회진출이 과거에는 대부분 농업계 교육기관과 농업단체 등의 농업관련 공직분야에 취업하였지만, 최근에는 농업과 관련이 적은 사기업 부문에 취업하는 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참고로 1946~1985년 사이의 서울대 농경제학과 졸업생의 사회진출 동향을 보면 <표 1>과 같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사기업에의 진출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추세는 최근에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농업이 국민경제의 중심산업이었던 1960년대 이전에는 졸업생들이 농수산부, 교육계, 농수산관련 정부투자기관에 주로 진출하였으나 1960년대 이후부터는 사기업으로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농·수·축협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취업은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에 올수록 농·수·축협보다는 일반 금융기관으로의 진출이 크게 늘고 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농업구조가 다양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농업경제 분야의 취업기회도

<표 1> 서울대 농경제학과 졸업생들의 직종별 분포(%)(730명 표본조사)

분	포	1946~1960	1961~1975	1975~1985	계
사	기	27.3	35.6	51.9	35.1
교	육	30.0	11.0	2.8	16.4
농업단체,	금융기관	12.6	18.9	13.2	15.9
농림수산부	관내	14.6	6.2	0.9	8.4
농림수산부	이외 관청	9.5	7.3	2.8	7.4
이	민, 유	2.4	10.5	4.7	6.8
연	구	0.8	5.1	5.7	3.7
정	부 투 자 기	2.8	3.5	1.9	3.0
대	학		0.3	15.1	2.3
연	론		1.6	0.9	1.0
계		100.0	100.0	100.0	100.0
취	업 인 원 수	253	371	106	730

* 자료 : 박진환, "경제발전과 농업경제학과 졸업생들의 고용시장", 『농업경제연구』 제28집, 1988, pp. 11~28.

농업관련 사기업을 중심으로 대폭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학 지식을 기본적으로 습득한 농업경제과 졸업생들에 대한 수요는 농업분야뿐 아니라 대기업, 일반은행, 종합상사, 보험 및 증권회사와 같은 비농업 분야로까지 넓혀졌다. 대체로 비농업 분야일수록 상대적으로 좋은 대우로 유치하고 있기에 비농업 분야로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농업분야의 농업경제학과 출신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졸업생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타분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경제학과와의 양적 팽창은 더욱 가속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대학교육의 전문성이라는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측면에서 교육투자의 효율적 배분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2) 계속 보완되어야 할 교과과정

대학의 교육내용은 교과과정과 직결되어 있다. 교과과정이 바람직하게 짜여져 있다면 대학교육의 절반은 성공한 셈이 된다. 그러나 사회의 여건이 변화하고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달라진다면 교육의 내용도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농업경제학 교육은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자급적 소농문제와 토지문제에 주로 관심을 쏟았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판매목적의 농산물 생산이 늘어나고 서구에서 새로운 학문을 접한 학자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서구의 교과과정이 대폭 접목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농업경제학과 교과과정에 일반경제학 교과목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학마다 산만하게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심지어는 교수들 자신의 전공이나 취향에 따라 교과과정이 편성되는 경향마저 없지 않았다.

1970년대 후반에는 대학교육이 전환기적 시대 변화에 부응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실험대학이 실시되면서 농업경제 분야의 교과과정도 1978년 한국농업경제학회의 주관으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바가 있다. 그 이후 거의 모든 대학이 개설학점과 필수과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제학과 교과과정은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표준화 현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 시기의 농업경제학과의 교과과정은 크게 경제학 이론, 농업경제 연구방법론, 농업경제 일반, 농업경영 및 생산경제, 농산물유통 및 가격, 자원 및 지역경제, 농업금융 및 재정, 농업사, 농촌사회, 농업기술과학 등의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경제학 이론이나 농업경제 일반,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 및 가격론 등의 농업경제학과 직결된 과목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법률, 정치, 행정, 기술과학 등에 대한 과목들이 줄어들고, 대신 자원경제, 지역경제, 농기업론, 농업금융 등에 대한 교과목의 개설이 늘어났다. 아울러 농업경영진단 및 설계, 선형계획법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과목이 개설되기도 하였다.

서울대 농경제학과의 교과과정은 1970년대 실험대학 이후의 이수학점이 160학점에서 140학점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과목수가 상당히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는 1970년대의 것과 큰 변화는 없었다. 경제학 이론분야는 재정학과 화폐금융론이 제외된 반면 기초 이론과목과 핵심 전공과목들은 거의 그대로이다. 반면에 기술과학분야에 속하는 농공학, 작물학, 원예학, 잠학, 임학개론 등은 농업과학개론으로 통합되어 크게 축소되었고, 농업의 국제화와 산업화 그리고 환경보전과 관련된 해외농업경제론, 농기업론, 자원경제학 등이 사회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신설되었다.

이러한 농업경제학과의 교과과정은 비교적 짜임새가 있고, 농업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농업의 현실과 농업경제학 교과과정의 괴리 현상이 부분적으로 존재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자급적 소농경제에서 시장경제 중심의 상업농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농업현실이 자본주의가 발달된 선진제국과는 큰 차이가 있음에도 농업경제학과의 교과과정은 선진제국의 교과과정과 큰 차이가 없다. 이는 우리나라 농업경제학의 정립이 한국적 농업경제를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시장경제 중심의 서구의 농업경제이론을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이 상업농 위주로 완전히 전환된다면 이러한 이론과 현실의 괴리는 훨씬 완화되었지만 당분간은 이러한 괴리 현상이 문제시될 수가 있다.

대학에 따라서는 앞으로 전개될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 환경산업화의 여러 가지 여건 변화를 교과과정에 부분적으로 반영시키고는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상태이다. 농산물교역전문가, 농업정보처리전문가, 지역농업전문가, 환경전문가 등을 양성해 낼 수 있는 교과과정은 거의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각 대학의 농업경제학과 교과과정은 지나치게 표준화된 체제를 보이고 있어 지역의 특성이나 대학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국제화와 지방화가 진행된다면 농업부문의 지역적 분화가 더욱 두드러질 것임에도 농업경제학과의 지역별 또는 대학별 특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3) 어려울 수밖에 없는 학과운영

농업경제학과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매우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습득케 해야 한다. 또한 농촌사회의 여건 변화에 민감해야 하고 문제해결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농업현장과의 접촉도 중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수 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지도를 담당할 교수의 수는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전국의 19개 대학 20개 농업경제분야 학과의 전임교수는 1993년말 현재 108명으로 학과당 평균 5명 정도이다. 그래도 국립대학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어서 평균 6명 정도인 데 비해 사립대학의 경우는 4~5명에 지나지 않는다. 교수 1인당 지도해야 할 학생수가 평균 33명 수준이다. 미국의 농업경제학과와 비교하면 열악하기 이를 데 없다. 이렇게 부족한 교수요원으로 학과운영을 정상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은 일종의 과욕이다.

학생들의 농업경제학에 관한 무관심도 정상적인 학과운영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공과목인 농업경제학보다는 기초학문인 일반 경제학에 관심이 더 높다. 이것은 졸업후의 진로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농업경제 분야보다는 상대적으로 대우가 나은 일반 경제분야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전공분야의 필수과목이 대폭 줄어든 상태에서 일반 경제학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택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정작 전공인 농업경제학의 지식습득은 크게 제한을 받고 있다.

농업경제학은 응용과학이기 때문에 농업현장과의 접촉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조사에 대한 실습이 매우 중요함에도 대부분

의 농업경제학과에서는 지나치게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농가실태조사, 농민여론조사, 생산비조사 등의 현지조사를 통하여 농업현실에 대한 이해와 자료수집 기법을 터득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조사실습비의 부족으로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농가의 경영지도를 비롯한 농가지도(farm extension)나 사회참여 기능은 예산부족으로 거의 엄두도 못 내고 있고, 실습기자재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4. 전망과 개선방향

그동안의 농업경제학 대학교육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확충되고 개선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과의 특성이나 교육목표에 비추어 현재의 농업경제학과 교육이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 없다. 개선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다. 졸업생의 관련부문 취업률 저조도 교육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어떻게든 개선되어야 하고, 교과과정도 계속 보완되어야 하며, 학과운영도 크게 혁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국민경제나 농업부문의 발전에 따라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우리 농업은 개방화에 대비하여 농업구조개선을 통한 규모화와 생산력 증대가 추진될 것이고, 농업의 국제화에 따라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 상업농화가 촉진될 것이며, 아울러 기술위주의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농업연관산업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교역이 확대되고 상업농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기술분야에서 종합정보통신망이 구축될 것이고, 이를 토대로 농업경영과 통신분야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우선 농업경제학과 졸업생들

의 관련부문 취업률 저조문제를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구조개선을 통한 규모화와 상업농화의 진전은 현대의 경영지식을 갖춘 농업경영인을 더욱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기술위주의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농업연관산업의 확대는 농업경제학과 출신에 대한 수요를 새롭게 창출할 것이다. 더구나 정보기술분야의 농업적 이용이 늘어나면서 데이터 베이스, 인공지능, 전문가시스템, 영농계획 지원 시스템의 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리고 민주화와 지방화의 진전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위한 지역경제전문가의 수요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농업경제학과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면서 농업경제학과와의 지나친 양적 팽창과 졸업생의 관련부문 취업률 저조문제는 조만간 상당히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교과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론과 현실의 괴리 문제도 앞으로 농업구조조정을 통해 소농생산양식이 극복되고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정착되어 간다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앞으로 농업경제학을 전공한 졸업생에 대한 취업시장이 확대된다면 전공과목인 농업경제학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도 크게 줄어들어 학과운영도 한결 제자리를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개될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농업경제학 대학교육은 상당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이 분야에 대해 앞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대로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부문의 전문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 농업경제학과와의 교과과정을 부분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제화에 대비한 국제무역, 정보

화시대를 대비한 농업정보체계의 개발과 이용, 농업관련산업의 인력수요 증대에 대비한 농기업 분야, 지방화시대를 대비한 지역개발 및 지역농업, 그리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관련된 후생경제나 환경경제 등의 분야가 훨씬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도 자급적 소농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들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교과목도 보강될 필요가 있으며 농업현장과의 접촉도 늘릴 수 있도록 '농업경제 연습'과 같은 현장실습 과목도 보강되어야 한다.

다음은 교수인력이 대폭 확충되고 보강되어야 한다. 농업경제학과는 학과의 특성상 교육내용이 광범위하고 전국에 두루 분포되어 있는 농업현장과의 접촉이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앞으로는 급격한 농업여건의 변화로 많은 새로운 분야들이 확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농업경제학과의 교수인력 확충과 보강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농업경제학과의 대학별 특성화라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는 농업경제 분야에 더욱 전문화된 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농업경제학과가 표준화된 규격에 맞출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역적 특성이나 대학의 여건에 따라 특성화해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응용과학인 농업경제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접촉기회를 늘릴 수 있고 적절한 지도기능을 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조사실습비의 부족으로 학생들이 농촌현장을 접할 기회가 적고 실습기자재가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여건으로는 현장과의 연계가 중요한 농업경제학과의 교육목표는 결코 충실히 달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

강봉순/서울대 농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독일 괴팅겐 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 주임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을 지냈고 현재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공저로 『세계의 농업문제와 농업정책』, 『한국농업, 이 길로 가야 한다』 등이 있고, 논문으로 "한국농업·농촌의 발전전망과 개발전략" 외 다수가 있다.